

쏘니, 새해 축포

EPL 카디프시티전 1골 1도움

시즌 11호골·6어시스트 기록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올려

토트넘 3-0 승…리그 2위 우뚝

손흥민(27·토트넘)이 2019년 첫 경기에서 새해 축포를 터뜨리며 골 생산을 재개했다.

손흥민은 2일(한국시간) 영국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디프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팀이 2-0으로 앞선 전반 26분 추가 골을 터뜨렸다.

이번 시즌을 통틀어 손흥민의 11번째 골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호 골이다.

손흥민은 에버턴과의 18라운드, 본머스와의 19라운드에서 연속 멀티 골을 몰아 넣은 이후 올버햄프턴과의 20라운드에선 도움만 하나 추가했으나 두 경기 만에 득점포를 재가동했다.

12월 리그에서 6골을 몰아넣으며 맹활약했던 그는 현지시간 새해 첫날 열린 경기에서 골 감각을 이어가며 리그 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도 한 발 더 다가섰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6호(리그 5호) 도움도 기록했다.

에버턴전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 지난 달 20일 아스널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경기 골까지 포함하면 최근 5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의 상승세다.

토트넘은 전반에만 해리 케인, 에릭센, 손흥민의 릴레이 골이 터진 데 힘입어 3-0으로 완승, 한 경기를 덜 치른 맨체스터 시티(승점 47)를 제치고 다시 2위(승점 48)로 올라섰다.

이날 최전방에 손흥민과 케인을 내세운 토트넘은 경기 시작 3분 만에 케인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반 12분엔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에릭센이 추가 골을 터뜨렸다.

오른쪽 측면에서 불을 잡은 손흥민은 반대편의 에릭센을 보고 침착하게 패스를 보냈고,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이를 따낸 에릭센은 날카로운 오른발 슛을 꽂았다.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공식 기록상 손흥민의 패스는 애초 도움으로 기록되지 않았다가 하프타임 이후 인정됐다.

손흥민은 전반 26분엔 직접 해결에도 나섰다.

오른쪽 측면의 무사 시소코가 페널티 아크 뒤편의 케인에게 공을 찰라쳤고, 케인이 짧게 넘긴 공을 받은 손흥민이 골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마무리로 팀의 세 번째 골을 뽑아냈다.

손흥민은 평소 골을 넣을 때 주로 하는 ‘하트 세리머니’ 대신 멋진 댄스로 자축했다.

후반 8분 손흥민은 동료의 패스를 받으려다 상대 센터백 솔 밤바에게 원발을 밟혀 고통스러워하는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우려하는 표정으로 상태를 점검했으나 손흥민은 금세 털고 일어나 경기를 계속 소화했다.

이후에도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가던 손흥민은 세 골 차 리드가 이어지던 후반 31분 올리버 스킵과 교체돼 나가 체력을 비축했다.

/연합뉴스

전남 드래곤즈 조청명 사장 취임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11대 대표이사로 조청명(사진) 사장이 취임했다.

조청명 사장은 1986년 포스코에 입사하여 포스코 혁신기획실장, 미래전략연구그룹리더, 베트남프로젝트추진반장, 포스코건설 경영전략실장, 대우인터내셔널 경영기획총괄, 포스코 가치경영실장(부사장), 포스코플랜틱 사장 등 포스코 및 계열사 주요 보직을 두루 지냈다.

조청명 사장은 “프로구단답게 우리 모두가 먼저 프로페셔널해야 한다. 그리고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행복축구단! 전남드래곤즈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새로 전남을 맡은 조청명 사장은 감독을 비롯한 코칭진 선임을 시작으로 1부 승격을 위한 구단 리빌딩에 나설 계획이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기본 좋은 출발 1일(현지시간) 영국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디프시티와의 2018-2019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27·토트넘, 왼쪽)이 상대팀 솔 밤바와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목표는 승격” 전의 다진 광주 FC

선수단, 7일부터 광양·오кина와서 체력·전술훈련

광주 FC 선수단이 2019시즌 승격 도전을 위해 다시 모였다.

휴식을 끝낸 광주 선수단이 2일 재소집됐다. 선수단은 4일 광주에서 매디컬 및 체력측정테스트를 마친 뒤, 7일부터는 광양과 일본 오кина와에서 체력과 전술훈련에 박차를 가한다.

4일 실시되는 체력측정테스트는 광주 스포츠과

학센터의 도움을 받아 구단 최초로 실시되는 과학적 분석 시스템이다. 선수들은 교차성, 근력, 민첩성 등 기초체력 10종과 무산소성파워, 유연성, 협응성, 등속성파워 등 전문체력 13종을 테스트받는다. 광주는 체력측정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선수별 취약 체력요인을 분석한 뒤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분석적인 훈련은 광양에서 시작된다.

광주는 7일부터 28일까지 광양에서 기초 체력을 소화하며 선수단 구성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광주 관계자는 “선수들 대부분이 젊기 때문에 성장의 폭도 넓다. 체력 훈련이 비겍겠지만 시즌이 시작되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는 특성에 맞는 개인별 훈련 시스템, 부상 방지를 위한 회복훈련 강화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차 훈련은 일본 오кина와에서 진행된다.

오는 3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는 광주는 2월 16일까지 연습경기 중심의 훈련으로 손발을 맞추고, 광주의 색을 입히는 데 주력한다.

국내 복귀 뒤에는 실전에 대비한 마무리 훈련을 하고 세트피스, 세밀한 전술 조정 등으로 팀전력을 완성할 계획이다.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을 앞둔 박진섭 감독은 “승격을 위해서는 그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선수들과 미팅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도약해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19시즌에는 더욱 강력하고 끈끈해진 광주를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테니스 ‘여제 vs 황제’ 본 사람이 승자

페더러, 세리나와 첫 혼복 맞대결 2-0 승…팬들에게 색다른 긴장감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38·스위스)와 ‘테니스 여제’ 세리나 윌리엄스(38·미국)가 사상 처음으로 공식 경기에서 맞대결을 벌였다.

1일 호주 퍼스에서 열린 호프먼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페더러와 윌리엄스는 혼합복식 경기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끝에 페더러 조가 2-0(4-2 4-3<5-3>) 승리를 거뒀다.

호프먼컵은 해마다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이벤트 대회로 한 나라에서 남녀 선수 한 명씩 팀을 이뤄 남녀 단식과 혼합 복식 경기를 통해 승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경기에서 페더러는 벨린다 벤치치와 한 조를 이뤘으며 윌리엄스는 프랜시스 티아포와 미국

대표팀으로 함께 출전했다. 테니스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페더러와 윌리엄스가 이렇게 맞대결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프먼컵은 공식 투어 대회는 아니지만 국가 대항전 형식이라 이날 경기도 비교적 긴장감 있는 분위기에서 펼쳐졌다. 특히 서로 상대 서브를 받아내고, 한동안 탠리를 돌리서 주고받는 등 팬들에게 신선한 재미를 선사했다.

페더러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왜 윌리엄스의 서브에 감탄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윌리엄스 역시 “평소 존경하는 선수와 대결하게 돼 나의 현역 시절 기억에 남은 경기가 됐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사상 첫 맞대결을 펼친 세리나(왼쪽)와 페더러가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